

문학기자가 추천하는 휴가철 읽을 만한 책 10선

# 더위 '씩' 힐링 '쑥'... '북캉스' 어때요

'살이 곧 책'이라는 말은 만고의 진리다. 책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능할 수 있고 지나온 생을 점검해볼 수 있다. 책임가는 기억과 상상을 매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다양한 인물들과의 대화를 나누는 데 의의가 있다. 다음은 문학기자가 추천하는 휴가철 읽을 만한 10권의 책이다.

▲**팔월의 일요일들(파트릭 모디아노)**=프랑스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거장이자 201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파트릭 모디아노의 장편 소설이다. 작품은 기억과 현실, 과거와 현재를 뒤섞는 묘사를 통해 생의 본질과 정체성을 조망한다. 남모를 비밀을 안고 낯선 곳으로 떠나온 주인공은, 하숙집에 머물며 연인과 새로운 출발을 꿈꾼다. 주인공은 연인이 지니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처분해 돈을 마련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도시를 걷는 사회학자(정수복)**=사회학자인 저자가 서울의 도심과 골목에 대해 쓴 인문학서다. 저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유학 후 귀국하고, 다시 파리로 떠나 10년을 살았다. 파리에서의 오랜 '정신적 망명' 생활을 마감하고 서울로 돌아온 그는 낯설어진 서울에서 '이방인'으로서 다시 적응하기 위해 서울의 도심과 골목들을 걷기 시작한다. 화려한 거대도시, 그리고 그 도시 속 작고 고단한 서울 사람들. 책은 그 명암을 특유의 문학적이면서도 냉철한 문장으로 그려낸다.

▲**딸에게 주는 레시피(김지영)**=베스트셀러 작가 김지영이 펴낸 에세이이다.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작가가 던지는 위로의 전하는 글로, 요리를 소재로 곁들여 남다른 글맛이 배어 있다. 큰딸 위영에게 건네는 편지 형식의 글에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씩 깨내들어 읽으면 좋을 글과 만들어 먹으면 힘이 될 요리가 실려 있다. 세상이 개떡같이 보일 때 만들어 먹으라며 권하는 콩나물 해장국 등 모두 27가지 음식 요리법이 수록돼 있다.

▲**책문(김태완)**=조선시대 대과의 마지막 단계에서 출제된 시험과 답안의 한 유형을 책문이라고 한다. '책문'은 시대의 물음이자 시대가 출제된 시험이다. 왕의 물음(책문)과 선비들의 대답(대책), 역자의 해설(책문 속으로)로 구성돼, 당시 시대적 화두를 엿볼 수 있다. 1447년 세종 29년, 인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강희맹은 이렇게 답한다.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임금과 뜻이 통하지 않는 인재가 서로 만나는 일은 마치 맹인 두 사람이 만나는 것과 같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물리학(이순철)**=국내 최초로 병렬처리 양자컴퓨터를 개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물리학자 이순철 키리스트 교수가 펴냈다. 저자는 책에서 근원적이고 난해한 물리학이라 할 수 있는 전자기학, 상대론, 양자역학의 핵심을 정확하면서도 쉽게 다룬다. 전하가 움직이면 전기와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자기력이 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힘인지 설명한다.

일이 맘대로 안될 때 '딸에게 주는 레시피'

이오덕·권정생이 나누는 편지 '선생님 요즘...'

쉽게 풀어 쓴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물리학'



▲**선의 법칙(편혜영)**=한국일보문학상, 이상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편혜영이 신작 장편이다. 소설은 신기정의 동생 신하정이 강에서 익사해 발견되면서 복잡하게 얽혀든다. 신기정은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는 식으로 체념하며 동생의 죽음을 수습한다. 작품은 과거에서 시작되는 인물들의 궤적을 파헤치면서 다른 점(點)에 가 닿으려 인간됨으로 그리는 선(線)에 주목한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울이다(고형렬)**=독특한 발상과 어법으로 독자적인 시세계를 펼쳐온 중견 시인 고형렬의 열 번째 시집이다. 2013년 '지구를 이승이라 불러줄까'를 잇달아 펴낸 지 2년 만에 선보이는 시집에서 시인은 자신만의 예리한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본다. 특히 시인은 불안과 혼돈의 세계에서 희망보다는 절망과 어둠을 통해 길을 내고, 그 어둠 너머의 빛을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물음과 이를 바탕으로 시 쓰기의 열정을 드러낸다.

▲**동물들 위한 윤리학(최훈)**=인간과 동물은 선사시대 이래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동물은 고기와 가죽,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더러운 생태계 일원으로 인간과 공존의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윤리적으로' 동물을 대하지만,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침승처럼' 대한다. '채식주의 철학자'로 불리는 저자는 이 문제를 철학적, 윤리적 측면에서 깊이 있게 고찰한다.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갖는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생님 요즘 어떠하십니까(이오덕·권정생)**=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가장 따뜻한 위로의 글이 담겨 있다. 이오덕, 권정생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 하며 주고받은 편지는 약값, 연탄값 걱정부터 혼자 잠 못 드는 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등과 같은 소소한 이야기가 소재다. "저 때문에 너무 염려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올해도 보리밥 먹고, 고무신 신으면 느긋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가난한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권정생, 1973. 3. 14)

▲**공부의 배신(윌리엄 데레저위츠)**=대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장애풀을 남는다. 하지만 지금의 대학 교육 시스템은 그저 '똑똑한 양떼'를 키울 뿐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에 직면해 있다. 예일대학 영문학 교수였던 저자의 '공부의 배신'은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책은 불편한 현실과 정면으로 대면하면서도 '스스로 고아가 되어라' '성공에 대한 욕망은 일종의 중독이다'와 같은 주제로 학생들의 내면을 파고든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 철학으로 읽는 조선후기 동국진체

내일 광주시립미술관 인문학 강의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21일 오후 3시 한국서예학회 회장을 역임한 성균관대 조민환 교수(사진)를 초대해 '철학으로 읽는 조선조 후기 동국진체(東國眞體)'를 주제로 2015년 상록인문학강좌 세 번째 강의를 진행한다.

남도는 한국 서단에서 민족적인 서체인 동국진체를 꽃 피운 서예의 고장이다. 특히 동국진체의 전통은 현대까지 전승돼 남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전개되고 있다.

서예에 대한 해박한 이론으로 원곡서예학술상 등을 수상한 조 교수는 동국진체의 발생부터 전개는 물론 원고 이광사, 백하 윤순, 참암 이삼만 등의 작품과 예술철학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조 교수는 중국 산둥사범대학교 한국어과 외국인교수, 한국서예학회 회장, 도가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 도교문화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문의 062-613-7155.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오정해와 함께하는 아리랑양상블 콘서트

23일 광주문예회관

국악인 오정해와 함께하는 아리랑양상블 콘서트가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광주문예회관 우수 작품 초청 기획 공연으로 마련된 무대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사랑'과 '아리랑'이다. 판소리 '춘향가'에 등장하는 사랑가를 비롯해 다양한 사랑의 감정을 담은 음악들을 들려준다. 또 대표 민요인 '아리랑'을 다양하게 해석한 곡들을 만날 수 있다.

공연 레퍼토리는 '춘향가' 중 '사랑가'와 '숙대머리', '꽃분네야', '님 찾아 아리랑', 'Arirang Fantasy', '청향', '타버린 사랑' 등이다.

2012년 조장원(세한대 음악과 전임교수)씨를 중심으로 창단한 프로젝트 그룹 아리랑양상블은 국악과 재즈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가야금, 해금, 대금, 피리, 타악 등 국악기와 색소폰, 하모니카, 피아노, 베이스, 드럼 등 양악기, 보컬, 팝핀댄서가 함께한다. 티켓 가격 1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062-613-83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전남대 'BK21플러스' 전문가 초청 강연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기록된 언어의 양상은 어떠했을까?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여기반 사업단'(단장·신해진 국어국문과 교수)이 제10회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20일(오후 2시) 인문대학 학술회의실(1호관 113호)에서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는 권인환 성균관대(국어국문과) 교수를 초청, '신라어의 형성과 발전'을 주제로 '삼국사기' '삼국유사'와 금석문에 드러난 신라어의 발전과 변화를 이야기한다.

특히 권 교수는 진한의 사료국 언어를 토대로 출발한 신라어가 어떻게 한 국가의 언어로 탈바꿈하게 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강연할 예정이다.

한편 권 교수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까지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고대 한일 양국의 한자, 한문 독법과 자국적 수용 양상', '국어사와 한자음' 등 18편의 저서를 펴냈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서남권의 중심호텔

##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국내 외·귀빈과 V.V.VIP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뤄내어 서남해안 관광산업과 목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그리아호텔 홍보대사 김연자·김성환



평화광장과 영산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탁트인 전망과 내집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최신시설과 고급인테리어로 새롭게 탄생한 웨딩홀! 여유로운 시간, 하루 한팀만 예약!!



웨딩 및 피로연 가족모임 각종 연회 세미나 들뜬치 등

###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

SHANGRIA BIACH TOURIST HOTEL

530-390 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 79(상동)

예약문의 (061)285-0100